

擇里誌 研究 序說

徐 樹 仁

머 리 말

- 一. 科學的 地理書로서의 擇里誌의 構成
- 二. 擇里誌에 展開된 地人相關論

- 三. 擇里誌가 地理學史에서 자리잡는 位置 結 語

머 리 말

地理學이 地球에 관한 記載의 學으로서는 諸科學 中 가장 오랜 歷史를 가졌지만, 사람과 그의 環境과의 사이의 相互關係의 科學⁽¹⁾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것은 Karl Ritter⁽²⁾(獨·1779~1859)와 Alexander von Humboldt⁽³⁾(獨·1769~1859) 이후라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通說⁽⁴⁾로 되어 있다.

現代地理學이 科學으로서 단순한 知見에서 벗어나서 法則을 追求하는 學으로서 成立되기 위하여 獨自의 方法과 領域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면은⁽⁵⁾ Karl Ritter나 Alexander von Humboldt 이전에 우리 나라의 李重煥(1690~?)이 지은 擇里誌⁽⁶⁾에서 이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擇里誌에 관한 研究로서는 鄭寅普의 解題⁽⁷⁾와 末松保知의 解題⁽⁸⁾가 있고 社會經濟面에서 考察한 論文으로서는 洪以燮의 李重煥의 社會經濟論⁽⁹⁾이, 地理學史의인 考察로서는 朝鮮科學史가⁽¹⁰⁾ 있으나 現代地理學의인 立場에서 살핀 것은 없는 것 같다.

이 작은 論文은 擇里誌를 現代地理學의인 視野에서 分析 考察하여 擇里誌가 지닌 地理學史에 자리잡는 위치를 뚜렷이 하고자 試圖한 것이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이 論文에서,

- (a) 科學的 地理書로서의 擇里誌의 構成
- (b) 擇里誌에 展開된 地人相關論.
- (c) 擇里誌가 地理學史에 자리잡는 위치.

를 論할까 한다.

一. 科學的 地理書로서의 擇里誌의 構成

머리말에서 論한 바와 같이 地理學이 사람과 그의 環境과의 相互關係의 科學이라면은 擇里誌이 前의 우리 나라의 모든 地理書는 事實의 羅列에

그친 百科辭典式 地誌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그 構成面에 있어서도 現代地理學의 立場에서 볼 적에는 科學的 地理書로서의 構成을 보지 못하였다 고 할 수 있다.

擇里誌는 그 構成에 있어서 科學的地理書로서 훌륭한 價値를 지니고 있다. 擇里誌⁽¹¹⁾의 차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四民總論·八道總論·平安道·咸鏡道·黃海道·江原道·慶尙道·全羅道·忠清道·京畿·卜居總論·地理生利·人心·山水·總論⁽¹²⁾.

위에서 보인 擇里誌의 배열이 오늘날의 地誌書와 비교할 적에 하등의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擇里誌의 구성을 地理學的인 視야에서 훑어보면 첫 머리의 四民總論과 八道總論, 그리고 끝 부분의 卜居總論과 總論은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一般地理學의 理論이고 平安道 以下 京畿까지는 特殊地理學 즉 우리 나라를 중심으로 한 地誌(地域地理學)이다.

四民總論에서 李重煥은

古無士大夫·皆民也·民有四·士賢而有德·國君仕之·不仕者或爲農爲工爲賈·昔舜耕於歷·山陶於河濱·漁於雷澤·耕農也·陶工也·漁商也·是以不仕於君·當歸於農工賈之民·夫舜千古爲 民之法也⁽¹³⁾.

라고 하여 그 때에 士農工商이란 階級이 발생했음을 論함으로써 平等論을 主張하였고, 이어 士大夫란 稱呼에 대한 由來를 밝혔으며, 階級 발생이 社會的 環境에 基因함을 論하여, 結局 그 時代의 社會性을 無視할 수 없음을 主張하고는 士大夫의 特異를 禮에 求하는 結論으로 이끌었다⁽¹⁴⁾.

八道論은 韓國의 地理總論으로서 먼저

崑崙山一枝·行大漠之南東·爲醫巫閭山·自此大斷·

是爲遼東之野·渡野起·爲白頭山·即山海經所謂·不咸山是也·精氣北走千里·挾二江·向南爲寧固塔·背後抽一枝·爲朝鮮山脈之首·有八道·曰安安·隣瀋陽·曰咸鏡·隣女眞·次則曰江原·承咸鏡·曰黃海·承平安·曰京畿·在江原黃海之南·京畿南則曰忠清及全羅全羅之東·即慶尙也⁽¹⁵⁾·

라 하여 먼저 國土의 境域을 論하고 이어,

慶尙即古卞韓辰韓地·京畿忠清·全羅即古馬韓百濟地咸鏡平安·黃海即古臨鮮高句麗地·江原別爲濊貊地·其興滅未詳·唐末王太祖出而統合三韓·爲高麗而我朝繼運矣⁽¹⁶⁾·

라하여 八道의 沿革을 論하였고, 다음에

東東西皆海·獨北一路·通女眞遼瀋·多山少野·其民柔謹局促長亘三千里·東西不滿千里·際海而南者·可值浙江吳會之間·平安之北·義州爲首邑·約可當青州·國大抵在日本中國之間⁽¹⁷⁾·

라 하여 우리 나라가 三面 바다에 싸인 半島國임을 뚜렷이 말하고 “多山少野”라는 表現으로써 地形의 特色을 簡明하게 밝혔으며, 이어 國民性의 特色을 “柔謹局促”이란 한 마디로 表現하고, 國土의 길이에 대하여 南北이三千里, 東西가千里未滿이라 하여 正確히 이를 밝혔고, 다시 우리나라의 相對的 位置를 더욱 뚜렷이 밝히기 위하여, 北쪽은 義州와 中國의 青州와가 같은 緯度에 있고, 南쪽은 中國의 浙江 吳會之間에 該當되는 緯度上에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現在 正確한 緯度를 따지면 약간의 差異는 있으나, 그때의 地理的 知識으로서는 놀라울만큼 正確한 것이라고 하겠고, 끝으로 우리 나라의 位置를 概觀하여 大略 日本과 中國과의 사이에 놓여 있다고 論하였다. 이는 우리 나라의 關係의 位置를 뛰어난 地理眼으로써 簡明하게 말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은,

古堯時·有神人·化生於平安道·价川縣妙香山檀木下石窟中·名曰檀君·遂爲九夷君長·年代子孫不可記·後箕子出封于朝鮮·都平壤·至孫箕準·秦時爲燕人衛滿所逐赴海遷都於全羅益山郡·號爲馬韓·箕氏地界·不詳於史氏·而與辰卞是爲三韓·赫居世興於漢·武帝時·盡有慶尙道·臣服辰卞諸地·號新羅·都慶州·朴昔金三姓·更迭而爲王·衛氏亡於漢武帝時·及漢移民棄地有朱蒙者·自靺鞨據平壤·號稱高句麗·朱蒙沒·其次子溫祚又分據漢水以南·滅馬韓號百濟·都扶餘·高句麗與百濟·俱滅於唐高宗時·棄地撤歸二國地盡入

新羅末·爲弓裔蓋葦所分·至高麗一之·此我國建置沿革之大略也⁽¹⁸⁾·

라 하여 우리 나라의 建設沿革을 論하였으며, 끝으로

新羅以前·三國戰爭不休·然文蹟少·自高麗而始可述矣·高麗時·士大夫名未大立·多起自胥吏而卿相者·一爲卿相則其子與孫·爲士大夫·咸置家於京城·京城遠士大夫淵·藪而外邑人罕有登于朝者·及雙翼制科學士外方人稍稍得顯仕于朝·然西北多武臣·東南多文士矣·及季世·文風大振·間有中原制科者·此通元之效也至今以大族·稱於世者·多高麗卿相之後裔·則士大夫之胄派來歷·自高麗而亦可述矣⁽¹⁹⁾·

라 하여 우리 나라의 士大夫의 胃派의 來歷이 高麗時代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士大夫의 地理的인 分布⁽²⁰⁾를 論함으로써 結論을 맺었다.

平安道 이하 京畿道까지는 우리 나라의 道別地誌로서, 각 道의 地理的 位置와 地形·氣候 등의 自然環境과 沿革·產業·聚落 등의 人文環境을 論하였다. 특히 각 道의 地誌를 論함에 있어 李重煥이 事實의 羅列을 止揚하여, 항상 自然環境과 人間生活과의 關係를 論하였음은 그 당시의 實學派 學者들의 科學的인 學問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한 地理學的인 立場에서 본다면은 이 事實은 韓國地理學史에서는 勿論이요 世界地理學史에 남길 수 있는 큰 功績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地理學이 Karl Ritter 나 Alexander von Humboldt 이후 科學的인 體系를 갖추었다고 하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허다한 地誌書가 나왔지만 그것은 상례 自然環境을 論함에 있어서 그 주위된 데두리 안에서 位置·地形·氣候 등의 항목에 따라 그 事實을 論述하였을 따름이요, 人間生活과의 關係를 關聯시켜 論한 것은 극히 드물며, …… 人文環境을 論함에 있어서도 產業·人口·聚落·交通·貿易 등 각 항목에 따라 自然과의 關聯 아래 記述된 것은 극히 보기드문 일인데 擇里誌에 있어서는 地誌를 論함에 있어 각 地域의 地域性을 自然環境과 人間生活을 關聯시켜 論하고 있다.

卜居總論은 그 첫 머리에서,

大抵卜居之地·地理爲上·生利次之次則人心·次則山永·四春缺一·非樂土也·地理雖佳·生利乏·則不能久居·生利雖好·地理惡·則亦不能久居·地理及生利俱好·而人心不淑·則心有悔吝·近處無山永可賞處·則無以陶寫性情⁽²¹⁾

이라 하여 살기 좋은 땅을 가리는 데에 있어 理想的인 구비 조건으로서 地理·生利·人心·山水를 들고, 그 相互關係를 論하였고, 本論에서는 각 조건에 대하여 具體的인 理論을 展開하였다.

卜居總論의 地理論은 소위 風水地理에서 말하는 陽宅論⁽²²⁾으로 그 첫 머리에서

何以論地理·先看永口·次看野勢·次看山形·次看土色次看永理·次看朝山朝永⁽²³⁾.

라고 하여 個人的 집터나 聚落的 立地 條件으로서 水口·野勢·山形·土色·水理·朝山朝永등을 들고, 이에 대하여 具體的으로 論하고, 사람의 살기 좋은 땅과 좋지 못한 땅을 일일이 가려 그 理由를 뚜렷이 밝혔다. 그러므로 地理 論은 現代地理學에서 말하는 聚落立地論의 自然條件을 論한 것이다.

生利論은 첫 머리에서

何以論生利·人生於世·既不能·吸風飲露·衣羽蔽毛則不得不從事於衣食·而上以供祖先父母·下以畜妻子奴婢·又不得不管而廣之·孔子教·亦既庶而教之·何嘗使裸體乞食·上不奉祖先之祀·不顧父母之養·不有妻子之倫而坐談直德仁義哉·夫世之驚空名背實用欠矣每欲強爲難強之事·故人不能無陰惡而陽善·是以不爲先務衣食之源·後治禮義之端春·欲人之無隱惡而顯之也·夫青松爲友·白雲爲伴·枕石漱流·耕烟汲月·其名豈不美哉·然此自上古禮文未備·舉世皆民之事·必以此爲律則冠不必相傾·相婚不必親迎·喪不必棺槨·祭不必俎豆·此豈可行得於今日哉·故人生一世·養生送死皆需賴世財而財非天降地湧·故土沃爲上·舟車人物都會·可以質還有無者沈之⁽²⁴⁾.

이라 하여 살기 좋은 땅을 가리는 데에 있어 經濟生活的 重要性을 論하고, 이 經濟生活的 根源을 땅을 利用한 生産 活動에 두었으며, 땅의 肥沃이 가장 重要한 條件이고 다음이 땅을 통한 生産 活動에서 生産된 物資의 流通이라고 論하였다. 그리고는 우리 나라를 中心으로 한 食糧과 衣料生産을 土質과 關聯시켜 具體的으로 考案한 土理論이 展開되고, 이어 江河論에서는 經濟活動의 動脈으로서 交通을 論함에 있어, 우리 나라의 地形이 山이 많고 平野가 적어 陸上 交通의 手段으로서는 그 당시 馱馬 이외는 不利함을 지적함으로써 水上 交通이 有利함을 強調하고, 각 地域의 水上交通을 具體的으로 關聯시켜 論하였다. 그러므로 生利論은 土地論·江河論으로 構成된 現代

地理學에서 말하는 經濟立地論이라 하겠다.

人心論은 그 첫 머리에서,

何以論人心·孔子曰里仁爲美·擇不處仁·焉得智·昔者孟母三遷·欲教子也·擇非其俗·則不但於身有害·於子孫必有·薰染註誤之患·卜居不可不視·其地之謬俗矣⁽²⁵⁾.

라고 하여 살기 좋은 곳을 가리는 立地條件으로서 自然環境과 經濟環境의 重要性和 더불어 社會環境의 重要性을 指摘하고 이어 八道 人心의 大략을 論하였으며, 다음에 四色黨派에 대하여 먼저 그 由來와 系譜를 밝히고 이어,

京城則四色合聚·俗雖疇不均·而外方則捨西北三道·四色分處於東南五道之間·而惟慶尙道·皆宗禮安李滉之學柳成龍爲混門人·南人之名·由成龍起故一道士大夫·皆爲南人議論歸一也·他道則四色·邑邑錯居矣先是李珥門人金長生·退居連山·教授俊進·懷德宋時烈宋浚吉·尼山尹宜學兄弟往學焉·宜學子拯·又學於宗時烈已而·有隕庚申後·時烈歸老論·拯入少論久之懷尼門人·互相攻擊·如永火·故連懷近處·皆宋金兩家之門生子孫也·其中惟尼山一邑·皆少論·以三尹故也·江原道京畿·臨江亭屋·多南人故家·而全羅則國朝中葉以後·鮮大官·不能培植·人物固少·士大夫只雄京城親知而爲之區別·故舊多南北人·今多老少論·號爲道內大族者·不過十餘家而多囿於富厚·少顯達者惟奇大升·李恒以外·無先生長者·可以彈壓訓迪者·人心尤澆薄·不及於上道矣⁽²⁶⁾.

라 하여 四色の 地理의 分布를 論하였고, 다음 四色黨派의 弊端을 痛烈히 批判하고 난 다음,

人心이 좋고 나쁜 것을 論할 것 없이, 문을 닫고 혼자서 그 몸을 가다듬어, 외부와의 교제를 끊으면 비록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모든 낙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結論했다.

山水論은 <山水總論·山論·山形論·海山論(島嶼論)·山水之勝·四郡山水論·江居論·溪居論>으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地形과 人間生活을 論한 것으로, 山水總論에서는 우리 나라의 山岳과 河川의 大략을 論하였고, 山論에서는 名山과 寺刹에 대하여 論하였으며, 山形論에서는 山形과 都市立地와의 關係에 대해서 論했고 海山論에서는 우리 나라의 島嶼에 대해 論했으며 山水之勝에서는 嶺東地勝에 대해서 論했다. 다음에 四郡山水에서는 丹陽·永春·淸風·堤川 四郡의 地理를 論하였고 江居論과 溪居論에서는,

諺曰·溪居不如江居·江居不如海居·此以通貨財取魚鹽而論耳·其實則海上多風·人面易黑·又多脚氣·永腫痺痛之·疾水泉既乏·土地且瀉·濁水潮至·清韻絕少我國地勢東高西低·江自峽出·少悠遠平穩之志·恒有倒捲急瀉之勢·凡臨江構亭屋者·地理多舛·與歇無常惟溪居有平穩之美·薰洒之致·又有灌溉耕耘之利·故曰海居不如江居·江居不如溪居⁽²⁷⁾·

라 하여 海岸살이와 江邊살이와 溪邊살이를 비교하여 聚落의 立地條件의 利로움과 不利함을 論하고 이어 具體的인 예를 우리 나라의 각 聚落에서 찾아 이를 증명하였다.

總論은 우리 나라의 姓氏와 居宅에 대해서 論한 것이다.

이상 論述한 것은 擇里誌의 構成 大要인데, 擇里誌 이전에 西洋에서 地理學에 있어서 최초로 體系와 方法을 試圖한 사람이 없는 바는 아니며, B. Varenius(1622~1650) 같은 사람이 있다. 그는 地理學을 地球 전체 및 그 諸部門을 數量的으로 파악하는 Mixed mathematics의 一部門으로, 地球를 全體의 對象으로 하는 一般地理學과 地域을 對象으로 하는 特殊地理學으로 나누고, 다시 一般地理學을 地球 전체의 形狀과 크기를 論하는 絕對論과 天體로서의 地球를 論하는 相對論과 地表上의 自然現象·各地의 經緯度 및 航海法을 論하는 比較論과의 三部로 나누었다. 그것이 그의 主著 Geographia generalis(1650)의 構成에 있어 明示되어 있다.

또 그는 特殊地理學으로서 각 地方마다 研究 對象으로 할 것으로서, (1) Celestial properties(그 곳의 經緯度·天體 現象·氣候). (2) Terrestrial properties(地域의 境界·形狀·地形·礦物·動物植物). (3) Human properties(人種·民族·文化 商業·政治·言語·宗教·名勝·古跡·人物)등을 들어 地理學 構成의 科學的 體系化를 꾀하였다⁽²⁸⁾. 이는 現代地理學이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으로 構成된다면은 確實히 그 構成의 科學的 體系化는 그의 커다란 공적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그 內容의 性格에 있어서는 Cosmography의 태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²⁹⁾. 이에 비해 擇里誌는 그 構成에 있어서도 一般地理論과 地域論으로 나누었고, 또 素朴하나마 地域論에 있어서는 行政區域을 指標로 하여 地域區分을 하였다는 점에서 現代地理學에 접근하며, 또한 각 地域의 地理的 事實

을 自然과 人間과의 關係에서 論하였다는 점에서 다시 오늘날 地理學 혹은 一般地理學과 特殊地理學(地誌)이라는 소위 地理學의 二元化라는 科學으로서의 危機를 타개하는 길로서, 地誌로써 地理學의 統一을 求하려고 하고 있는데⁽³⁰⁾, 그 當時 이미 이 問題를 타개하는 길을 示唆한 점이 世界 地理學史에 擇里誌가 자리잡는 確고 不動한 位置라고 하겠다.

勿論 擇里誌도 엄밀히 따지면 그 構成에 있어 크게 一般地理學과 地誌로 나누어지지만, 一般地理學의 論旨는 自然과 人間生活과의 關係 즉 環境論理論만 추상적으로 論한 것이 아니라, 具體的인 예를 우리 나라에서 찾아서 地域的 概念을 考慮하면서 理論을 展開한 것이다.

二. 擇里誌에 展開된 地人相關論

擇里誌가 科學的인 地理書로서 世界地理學史에 있어 確고 不動한 位置를 자리잡을 수 있는 價値는, I에서 論述한 바와 같이 그 構成에서도 찾을 수 있으나, 地理學은 또한 단순한 常織이나 知見에서 벗어난 法則을 追求하는 學이니 地理學으로서의 理論을 必要로 한다. 擇里誌는 그 이전의 史書類에 나타나는 地名 記入式 地誌나 事實을 羅列한 百科辭典式 地理書의 領域에서 벗어나서, 地理的 事實을 論함에 있어 항상 自然環境과 人間生活과의 相互關係에서 結論을 내리는 環境論的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 具體的인 實例를 우리 나라를 舞臺로 한 地域에서 찾아서 理論을 展開하여 나갔다. 이와 같은 實例를 擇里誌에서 代表的인 것을 골라 내면 다음과 같다.

淸川江以南謂淸南·地形東西狹·以北謂淸北·地形東西延袤甚廣·一道東近嶺脊·山多而平地少·且乏川澤可灌溉者·故水田絕少·野皆田穀·箕氏高氏之盛·地狹民多多·夷山開墾·及屢爲淸兵所徙·地多荒廢·且王氏混一後·民多洗下三南·至今野曠民稀·少山耕矣·西則近海諸邑·多障潮爲水田·然視田則少·故一道米價·常翔貴於三南·俗事桑麻縮作·魚鹽絕貴·雖臨海邑·羹鹽處不多·地不產竹柿桔芋·淸北則地又高寒·近塞·故亦無花果·而物產甚稀少·民多皆窟生·惟平壤安州二邑爲大都會·市裕蕪貨·商賈隨使臣往來者每獲奇羨·多富厚者·且淸南近內地·俗尙文學·淸北則俗雅魯尙武·惟定州多登科文士矣⁽³¹⁾·

이상은 平安道項(95~6) 原文을 그대로 적어본 것인데,

清川江以南謂清南……以北謂清北

이라고 하였음은 저자가 卓越한 地理眼을 가지고 河川을 중심으로 하여 兩分되는 地域區分의 개념을 엿볼 수 있으며,

以北謂清北·地形東西延袤甚廣·一道東近嶺·脊山多而平地少·且乏川澤可灌溉者·故水田絕少·野皆田穀⁽³²⁾.

이라 하였음은 清北地方의 地形과 人間의 經濟活動의 反映인 土地利用과의 關係를 論하여논이 적어 밭 농사 지대가 形成되는 理由를 명확히 說明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 나라의 地形과 논밭分佈 상황과도 一致된다⁽³³⁾.

箕氏高氏之盛·地狹民多·多夷山開墾·及屢爲清兵所徙·地多荒廢·且王氏混一後·民多洗下三南·至今野曠人稀·少山耕矣⁽³⁴⁾.

이라 하였음은 箕氏朝鮮과 高句麗가 北쪽을 무대로 形成된 國家인 만큼 이 地域에 人口가 集中되는 現象이 일어났다는 것을 指摘하였고, 當時의 産業을 볼때 農業이 위주였을 것이다. 過多人口를 부양하기 위하여 山地까지 開墾하였다는 土地利用의 역시를 論하였고, 또 그 후 戰亂으로 말미암은 難民이 생겨 개간된 土地가 荒廢하였음을 말하고, 高麗朝에 이르러서도 人口가 三南으로 移動하여 現在(李朝)는 겨우 山을 갈고 사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土地利用史와 人口分布의 變遷을 論한 것이라 하겠다.

西則近海諸邑·多障潮爲水田·然硯田則少·故一道米價常翔貴於三南⁽³⁵⁾.

이리 하여 南海岸은 潮水干滿의 差가 심하여 논이 潮水의 침해를 입게 되므로 논이 적음을 지적하고, 논이 적음으로 쌀값이 항상 三南의 穀倉地帶보다 비싸다는 것을 말하였으며, 이는 主穀인 쌀의 生産에 있어 그 產出이 적음은 潮水의 害라는 自然環境과 關聯시켜 論한 것이다.

俗事桑麻縮作⁽³⁶⁾.

이라 하였음은, 潮水의 침해로 말미암아 논이 적어 主穀을 많이 生産하지 못하므로, 밭농사를 하여 뽕나무와 삼 따위를 재배하여 綢織·麻織 등으로 衣料生産에 주력한다는 것을 論한 것으로, 이는 인간이 그 自然環境을 끌어내어 그 地域에 알맞는 經濟生活를 영위한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

魚鹽絕貴·雖臨海邑·羹鹽處不多⁽³⁷⁾.

라 하여 바닷가에 있으면서도 소금이 비싼 까닭을 소금을 굽는 곳이 많지 않는데 두고 있는 것은 현재 西海岸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鹽田地帶와 비교하여 불 적에 일견 모순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때의 製鹽은 天日製鹽이 아니었을 것이니 소금을 굽는 곳이 적다는 것이 비싸다는 충분한 理由가 될 것 같다.

地下產竹柿楮芋⁽³⁸⁾.

라고 하여 植物이 栽培되는 限界를 지적한 것은 그 때의 다른 地誌책에서 볼 수 없는 特異한 地理眼에 입각한 관찰이라 하겠고,

清北則地又高寒·近塞故亦無花果·而物產甚稀少·民多皆窳偷生⁽³⁹⁾.

이라 하였음은 清北의 地形과 氣候가 經濟活動과 住民의 性品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을 論한 것이라 하겠다.

惟平壤安州二邑·爲大都會·市裕燕貨·商賈隨使臣往來者·每獲奇羨·多富厚者⁽⁴⁰⁾.

라 하였음은 清北·清南地方이 自然環境으로 보아 經濟活動에 不利한 데도 平壤과 安州만이 大都市로 發展한 까닭을 그 때의 社會的 歷史의 조건에서 찾아서 論하였다. 즉 그 때 中國 燕京과의 교섭이 빈번하였는데, 平壤 安州 두 都市는 燕京으로 通하는 交通路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使臣을 따른 商人의 往來가 빈번했으므로 中國을 상대로 하는 貿易으로 번영해졌다는 것이다.

끝으로,

清南近內地·俗尙學·清北則 俗魯尙武⁽⁴¹⁾.

라고 한 것은 그 地域의 生理的 特色을 論함에 있어 M. Le Lannou가 말한 바와 같은 이른바 地域의 相互의 連帶性(Solidarité bilatérale)⁽⁴²⁾을 論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清南地方은 新朝鮮(李朝)에 가까우므로, 儒學을 中心으로하는 內地의 영향을 받아 住民이 文學을 崇尚하고, 清北은 그 영향 밖의 地域이므로 世俗이 야만하고 武를 崇尚한다는 것으로, 이는 A 地域과 그 地域에 接近한 B 地域 사이에 連帶性이 강하게 作用되어, 地域形成에 커다란 구실을 한다는⁽⁴³⁾ M. Le Lannou의 地域 相互間의 連帶性 理論과 부합된다.

위에서 論한 것은 李重煥의 地人相關論의 한 귀

걸을 現代地理學的인 입장에서 분석 고찰한 것이지만, 이 밖에도 各項에 相關論의 理論이 展開되어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勿論 理論 展開에 예인 凡人受陽氣以生·天乃陽光也·少見天處·決不可居⁽⁴⁴⁾.
어라든가

是故·野愈曠則基愈美·須使日日星辰之光·燦然恒臨
風雨寒暑之候·盎然得中·人才多出·而亦少疾病·最
忌四山高壓·日晚出而早入·夜或不見北斗·靈光既少
陰氣易乘則或作神叢鬼窟·朝夕嵐瘴之候·又使人易病
此所以峽居不如野居·⁽⁴⁵⁾.

고라 한것들은 그 가운데서 약간 風水地理學的인 思想이 보인다고 하나. 이것을 現代地理學的의 視野에서 분석한다면은 地形과 氣候環境이 村落立地와 밀접한 關係가 있다는 점을 論하였다고 해석되며, 넓은 들을 가지고 해가 쪼이는 시간이 길고 기후의 변화가 있는 곳이 村落이 立地하는 데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여, 좁은 山間地帶보다 넓은 平野地帶가 村落立地에 알맞는 곳이라는 것을 論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설혹 風水地理學的인 表現이 엿보인다 하더라도, 朝鮮科學史⁽⁴⁶⁾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擇里誌가 時代 精神과 傳統을 一時에 벗어나서 뛰어날 수 없는 것이 존재하는 社會的 영향 아래 產出된 李重煥의 思想의 結晶이라면, 하등의 그 가치가 손상될 바는 없다.

그러므로 擇里誌에 展開된 地人相關은 論學으로서 훌륭한 價値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 通說로 되어 있는 Karl Ritter와 A. von Humboldt의 出現으로 이루어진 科學的 地理學的의 出發點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世界地理學史에서 자리잡을 수 있는 擇里誌의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三. 擇里誌가 地理學史에서 자리잡는 位置

光文會本 擇里誌의 解題에

此書出於實歷精討·地以論人·人以論事·利以相地地·以相居尤致力於人地交與之際·蓋我東地誌書之最精要者·亦人文地理學之初發明也⁽⁴⁷⁾.

라고 하여 擇里誌가 地理書로서 地人相關論의 입장에서 理論을 展開한 精要한 地誌書임과 同時에 韓國地理學史에 있어 자리잡는 위치를 밝혔다.

擇里誌 이전의 우리 나라의 地理書는 대개가 三國史記 地理志에서 보는 바와 같은, 地名을 羅列하여 그 변천을 說明하는 것이 아니면, 中國式

을 모방한 官撰地理志의 따위인 世宗實錄 地理志나 東國輿地勝覽과 같은 사실을 나열한 百科辭典式 地理志였다.

그리고 그것들은 대개가 국가의 조세 징수, 土地制度에 따라 區分된 田地의 區劃, 軍事的으로 備置된 驛典의 管理등 國家行政을 推進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결코 學問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擇里誌는 순수한 學問的인 입장에서 이루어진 개인의 저술로서, 地名을 풀이 한다면은 事實을 羅列한다면은 하는 地誌에서 벗어나서, 과학적인 構成과 실지로 國土를 踏査⁽⁴⁸⁾한 結果에서 얻은 貴重한 體驗을 토대로 하여 尙상, 사람과 자연과 관련시켜 理論을 展開함으로써 韓國地理學史에 있어 不滅의 위치를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擇里誌의 저자 李重煥은 1690年(肅宗庚午)에 나서 1713年 文科에 급제하였고⁽⁴⁹⁾, 英祖朝에 官에 持平에 이르렀으며, 退官 후 저술로써 스스로 즐겼다고 하는데⁽⁵⁰⁾, 별세한 年代는 未詳이다. 그리고 擇里誌의 著作 연대도 필자는 밝히지 못하였는데 또한 밝혀낼 수 있는 文獻도 드문것 같다⁽⁵¹⁾. 그러나 文科에 급제한 해가 1713年이니, 급제 후 官에 있던 연수를 가산한다면은 1713年에서 몇 해를 지난 해부터 별세한 사이에 擇里誌가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별세한 해가 미상이니 60세를 一期로 가정해서, 擇里誌는 1713年에 몇 해를 보텐 해부터 1750年 사이에 저술되었다고 볼 수 있다.

現代地理學이 學으로서 출발한 시기를 Kar Ritter나 A. von Humboldt가 나타난 이후로 본다면은, Karl Ritter의 名著 Die Erdkunde의 第一卷이 1817년에 출판되었으니⁽⁵²⁾ 이보다 年代的으로 앞선 것이 事實이다.

따라서 앞서 I·II에서 論한 바와 같이 擇里誌는 構成에 있어,

- (1) 科學的인 體係化를 피하였고.
- (2) 行政區分을 指標로 하여 地域區分을 하였으며.
- (3) 각 地域의 地理的 事實을 地人相關論的인 입장에서 論하였고.
- (4) 地理學的의 二元化라는 科學으로서의 危機를 타개하는 길로서, 地理學的의 統一을 地誌에

서 구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전에 地理學의 二元化라는 危機를 타개하는 길을 시사하였 으며.

(5) Karl Ritter 나 A. von Humboldt 에 앞서 地 人相關論의인 理論을 전개하였다.

그러니 이 5가지가 擇里誌가 世界地理學史에 자리잡는 위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結 語

擇里誌를 構成面과 地人相關論의인 面과 地理 學史에서 자리잡는 면에서, 現代 地理學의으로 분석 考察하여 왔다.

(a) 構成面에 있어서.

(1) 一般地理學과 地誌로 나누어 地理學의 科 學的體系化를 圖謀하였고.

(2) 素材하나마 行政區域을 指標로 하여 地域 區分을 피하였으며.

(3) 오늘날 論議되고 있는 地理學의 二元化라 는 科學으로서의 危機를 타개하는 길로서, 地誌로써 地理學을 통일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b) 地人相關論의인 面에서.

(1) 地理學의인 사실을 論함에 있어自然과 人 間과의 關係에서 論하였고.

(2) Karl Ritter 나 A. von Humboldt 에 앞서 地 人相關論의인 理論을 展開하였다.

(c) 地理學史에서 자리잡는 위치에서.

(1) 韓國地理學史上으로는 地名說明式 事實羅 列式 地誌에서 벗어나서 理論的 근거에서 地理의 사실을 論하였고.

(2) 世界地理學史上으로는 現代地理學의 출발 점이 되는 Karl Ritter 의 Die Erdkunde 第一 卷이 나오기 전에 저술되었다.

이상은 擇里誌를 現代地理學의으로 考察하여 얻 은 가치이니, 擇里誌는 과연 世界地理學史에서 확고 부동한 위치를 가진 地理書라 하겠다.

(釜山教育大學)

<註>

(1) 假本信之者 地理學發達史 p. 135.

(2) Karl Ritter (1779~1859)는 世界 地理를 研究 목적으로 Die Erdkunde 의 第一卷(Afrika) 篇을 1817 年에 著述하였 다. 그의 地理學에 대한 研究 態度는 항상 地域 가운데서 모든 事物들이 어떻게 서로 關係되고 있는가를 나타 내려고 努力하였다. 地理學은 地表面의 形狀에 關한 一種의 解剖學이라는 생각이 그의 地理學의思想이라고 하고 있다. K. Ritter 가 地理學研究에 對하여 남긴 貢獻은 ① 地

理學研究는 觀察에서觀察로 나아가야 할 것이지 假說에서 觀察로 나아가서는 안된다는 것과 ② 系統的研究보다도 地域的研究를 하여야한다는 點이다.

(3) A. von Humboldt (1769~1859)는 K. Ritter 보다 著述에 있어 뒤겼으나 1845~62 年에 <Kosmos>를 著述하였다. 그는 審察의 學者가 아니었고 실제로 中·南美, 中央 Asia 外 地로 踏查研究를 거듭한 實踐의 學者였다 그의 地理學에 대한 偉大한 貢獻은 ① 物理的, 生物的過程에 대하여 그의 知識을 그와 他人의 觀察한 諸現象의 系統的分類 및 比較記述에 適用한 점이며, ② 觀察한 現象을 計測하는 方法을 突出한데에 있다. 兩美의 熱帶山地에서 각각 다른 海拔高度에서의 氣溫을 測定하여 동일 氣溫의 地점을 찾아 等溫線을 그리는 것에 着想한 일과 각국의 Census 의 자료를 손이 미치는 대로 모으고 그것이 없을 경우는 推定한 人口의 推定을 한 일등은 地理學을 종래의 定性的의 百科辭典式 記述에서 定量的系統的記述로 進 展시킨 것으로 地理學史에 대한 큰 공적이라 하겠다.

(4)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의 歷史上方法 p. 152

科學的 地理學의 成立의 K. Ritter, A. von Humboldt 이후라고 主張한 사람은 A. Hettner(獨. 1856~1941)이다. Thatham, George "Geography in the Nineteenth Century" Geography in the Twentieth Century. ed. by G. Taylor. p28 에서도 科學的地理學의 成立을 대략 1750 年代로 보고 Kant, Humboldt, Ritter, peschel, Ratzel 등의 사람들의 功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5) 野間三郎外 三人共著 地理學의 歷史と方法 p. 152

(6) 擇里誌는 八域志·山水錄·廢雜勝覽·總貨等 여러가지 別명 여러가지 別언을 가지고 있다. 擇里란 里 끝 마을을 擇한다 가린다는 뜻이고 八域이란 八道の 地域이란 뜻이다 擇里誌란 愚란한 南人들이 살기 좋은 땅은 땅을 가리 고가 마을(里)을 가리(擇)는바라 이윤지어진 것으로 짐작 되며 살 곳을 찾다 보라 살기 좋은 곳을 求해 한국의 地理를 研究하여 記錄한 것으로 八域誌란 이름이 더 타당할 것 같다.

(7) 鄭寅普著 國學叢覽

(8) 末松保和 擇里誌について(書物嗜好)

(9) 洪以變 李重煥의 社會經濟論(延世春秋 122號. 1957.)

(10) 洪以變著 朝鮮科學史 p. 250~p. 251(地理學 項)

(11) 朝鮮光文會 (1212年)에서 出刊한 擇里誌를 가르킨다.

이 책은 李重煥이 著述한 原本一冊(閱濟稿寄本)에 의한 것이다. 앞으로 論文中에 나오는 擇里誌는 光文會本을 가르 키키로 한다.

(12) 擇里誌 目錄

(13) 擇里誌 p. 1(四民總論項)

(14) 洪以變著 朝鮮科學史 p. 2251

(15) 擇里誌 p. 2(八道總論項)

(16) 擇里誌 p. 2(八道總論項)

(17) 擇里誌 p. 2(八道總論項)

(18) 擇里誌 p. 2~p. 3(八道總論項)

(19) 擇里誌 13(八道總論項)

(20) 住民의 階級別 分布狀況을 說明하여 서울은 士大夫가 많이 살고, 東南地方에는 文士들이 많이 살며 西北地方에는 武臣들이 많이 산다고 하였다.

(21) 擇里誌 p. 42(卜居總論 項)

(22) 風水地理에서는 사람을 生窮, 死後로 兩分하여, 산 人을 陽 즉은 人을 陰으로 하여, 즉은 人의 무덤을 陰基라 하며, 산 人의 生전을 陽宅이라한다. 陰基의 穴은 작은 지력에 局限되지만 陽基는 穴의 地터보다는 촌락·도시등 많은 人들의 집안이 幸福을 누릴 수 있는 곳을 좋은 大地로 본다. 陽基는 陰수목 좋다고 한다. 그 穴은 子孫의 分門繁榮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現代地理學에서 말하면 陽宅論은 聚落地論이라 하겠다. (23) 擇里誌 p. 43(卜居總論 地理項)

- (24) 擇里誌 p. 44 (卜居總論 生利項)
- (25) 擇里誌 p. 48 (卜居總論 人心項)
- (26) 擇里誌 p. 53 (卜居總論 人心項)
- (27) 擇里誌 p. 73 (卜居總論 山水項)
- (28)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の 歴史と方法 p. 136
- (29)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の 歴史と方法 p. 136
- (30)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の 歴史と方法 p. 136
- (31) 擇里誌 p. 5~p. 6 (平安道項)
- (32) 擇里誌 p. (平安道項)
- (33) 우리 나라를 신의주와 포항 사이를 선으로 댔으면, 대략 동북쪽에 山地가 많이 分布되고, 서남쪽에 平野가 많이 分布된다. 이 선을 경계로 한 동북쪽과 서남쪽의 地形의 特色과는 反 分布 상황을 보면, 山地가 많은 동북쪽에 밭이 많고, 平野가 많은 서남쪽에 논이 많이 分布된다. 淸北地方大部分이 山地가 많은 동북쪽에 들어가니 논보다 밭이 많다.
- (34) 擇里誌 p. 5~p. 6 (平安道項)
- (35) 擇里誌 p. 6 (平安道項)
- (36) 擇里誌 p. 6 (平安道項)
- (37) 擇里誌 p. 6 (平安道項)
- (38) 擇里誌 p. 6 (平安道項)
- (39) 擇里誌 p. 6 (平安道項)
- (40) 擇里地 p. 6 (平安道項)
- (41) 擇里地 p. 6 (平安道項)
- (42)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の 歴史と方法 p. 205
- (43) 野間三郎外 二人共著 地理學の 歴史と方法 p. 205

- (44) 擇里誌 p. 43 (卜居總論 地理項)
- (45) 擇里誌 p. 43 (卜居總論 地理項)
- (46) 洪以燮著 朝鮮科學史 p. 251
- (47) 擇里誌 解題(光文會刊)
- (48) 擇里誌 p. 14 (江原道項)의 余“時年十四・隨板輿・行白雲橋・至府西大關嶺・無論平地高嶺・路在萬木中・仰不見天日者……………”이라든가. 擇里誌 p. 57 (卜居總論 山水項)의 “夫全羅平安則余所不見・咸鏡江原 萬海京畿忠淸慶尙・余多見之矣.”라고 한 것을 보면, 八道中全羅道와 平安道를 除外하고는 각 도를 두루 답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답사에서 얻은 자료가 擇里誌를 엮는데 큰 구실의 하였을 것 같다.
- (49) 安鼎福雜記・朝鮮人名辭典 p. 563 (여기에는 朝鮮圖書解題에 의거하였다고 되어 있다). 洪以燮著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研究 p. 9 (第一章 生涯一學의 形成項)에 실려 있는 것을 보면 生年이 西紀 1700年 肅宗 26年庚辰)으로 되어 있으나, 安鼎福雜記와 朝鮮人名辭典의 것을 따리기로 했다.
- (50) 擇里誌 解題(光文會刊)
- (51) 筆者가 찾아 본 擇里誌에 關係되는 文獻中에서 著述年代가 뚜렷이 밝혀져 있는 것은, 洪以燮著 丁若鏞의 政治經濟 思想研究 p. 9에 있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그 出典이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未詳으로 하기로 했다.
- (52) 飯本信之著 地理學發達史 p. 149